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임수범, 《어젯밤 바라본 금빛 용의 신기루》
LIM Subeom, *Last Night's Golden Dragon Mirage*



임수범, 《어젯밤 바라본 금빛 용의 신기루》(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참여작가 : 임수범(b. 1997)
전시제목 : 《어젯밤 바라본 금빛 용의 신기루》
전시일정 : 2026년 7월 1일(수) - 8월 15일(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종로구 율곡로 85) B1F
전시작품 : 회화 35점, 도자 27점

[작품 이미지 및 전시전경]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yEW8EtkJ4VwNx0ZGpGg6wkYuCy86vmVX?usp=drive_link

[문의]

박미란 팀장 E. miran.park@arariogallery.com

황보영 담당 E. boyoung.hwang@arariogallery.com

자료목차	1. 전시개요	-----	2
	2. 전시구성 및 작품소개	-----	2-3
	3. 작가노트	-----	4
	4. 전시전경	-----	5
	5. 작가소개	-----	6
	6. 전시서문	-----	6-9
	7. 작가약력	-----	9-10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6년 7월 1일(수)부터 8월 15일(토)까지 **임수범**(b. 1997) 개인전 《어젯밤 바라본 금빛 용의 신기루》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임수범이 아라리오갤러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개인전으로, 인간의 언어나 지각에 의해 조형되지 않은 미지의 장소와 그곳에 서식하는 명명되지 않은 존재들을 다룬 회화 및 도자 62 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임수범은 자연과 물질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인류 이전부터 존재했을 만물의 의식을 상상하며 인간의 언어나 지각으로 온전히 규정할 수 없는 경계 너머의 존재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그는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관계망으로 바라보며, 규정되지 않은 존재들을 화면과 공간 위로 불러내어 중심과 주변의 위계를 허무는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하고 있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지하층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동시대 사회적 상황 속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임수범은 나와 우리의 견고한 경계를 비집고 침범하는 이방인을 압도적이고 신성한 '신' 혹은 흥측하게 뒤틀린 '괴물'로 병치해 온 인류의 역사에 주목하며, "우리는 과연 이들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그 성찰의 매개체로 임수범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신(청룡, 주작, 백호, 현무)'의 도상을 차용한다. 사신은 경계 내부의 사람들에게는 보호를 제공하는 신성한 존재지만, 경계 밖의 이들에게는 두려운 괴물로 비칠 수 있는 양가성을 지닌다. 전시장에 내려앉은 거대한 금빛 용의 형상과, 그 주변을 압도적으로 에워싸고 있는 네 점의 사신 연작은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나 신도 괴물도 아닌 경계 세계의 존재를 시각화한다. 신성과 괴물성의 위계가 사라진 공간에서, 전시는 이분법을 넘어 낯선 존재에 대한 다양한 사고의 확장과 새로운 차원의 연결을 시도해보자 한다.

2. 전시구성 및 작품소개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LIM Subeom.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이번 전시는 인간의 지각 너머에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을 가시화하려는 임수범의 구조적, 매체적 실험을 다방면으로 조명한다. 전시 제목이자 동명의 작품인 <어젯밤 바라본 금빛 용의 신기루>(2026)에서 '신기루'는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가닿을 수 없는 환영이자,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과 실제 아는 것 사이에 놓인 불완전한 간극을 상징한다. 임수범은 인류의 언어나 지식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경계 밖의 존재들을 친숙한 생김새의 생명체로 치환하여 화면 위에 소환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적인



<어젯밤 바라본 금빛 용의 신기루>

2026

캔버스에 아크릴릭

224 x 224 cm

인지의 한계를 넘어, 거대하고 통제할 수 없는 세계의 낯섬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미지의 세계는 임수범이 그려내는 화면 구조를 통해 무한히 확장된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 시점의 변화를 통해, 한 걸음 물러설 때마다 또 다른 차원이 나타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허물어진 경계를 비집고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2026)에 군집해 있던 존재들이 각각 독립된 소품으로 다시 그려지기도 하고, 특정 작품에 등장했던 도상이 다른 작품 속에 예기치 않게 나타나며 서로의 화면을 넘나든다. 하나의 존재 뒤로 거대한 세계가 펼쳐지고 다시 새로운 산맥이 포개지는 방식은, 세계가 결코 단일한 서사나 고정된 의미로 규정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꼬리를 물고 무한히 겹쳐지는 임수범의 화면은 하나의 고정된 서사로 결론 맺기를 거부하며, 인간의 인지 너머에 존재하는 끝없는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한다.



<찬바람을 가로지르는 하얀 범>

2026

캔버스에 아크릴릭

140 x 20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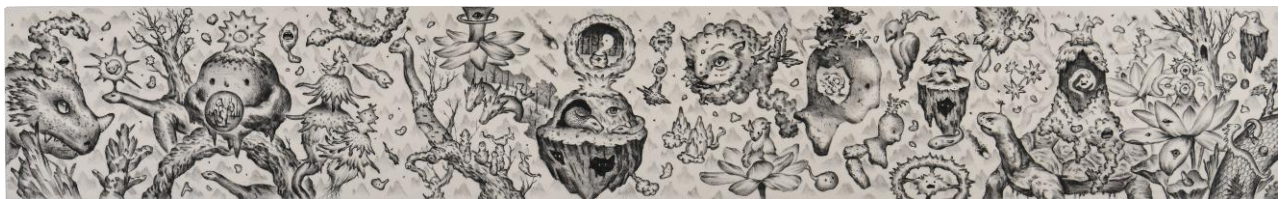


<뜨거운 날갯짓을 하는 붉은 새>

2026

캔버스에 아크릴릭

140 x 200 cm



<허물어진 경계를 비집고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

2026

펠트에 연필

30 x 200 cm

나아가 임수범은 이 규정할 수 없는 환영의 존재들에게 물리적인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매체의 물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한다. 화면에 모래를 뿌리고 아크릴 물감을 열게 겹쳐 올려 오래된 고분 벽화처럼 마모된 시간의 질감을 만들어내거나, 흙과 불을 거쳐 형태를 보존하는 도자 매체를 활용하는 작업이 그 예다. 이는 경계 너머의 형상들을 찰나의 신기루로 흩어지게 두지 않고, 과거의 유물적 형상을 빌려 아주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의 기록적 태도를 함께 보여준다.



<공생하는 정령>

2025

도자기 위에 유약

23 x 24 x 41 cm

3. 작가노트

사방을 수호하는 사신: 신과 괴물의 경계 사이 내밀한 세계

임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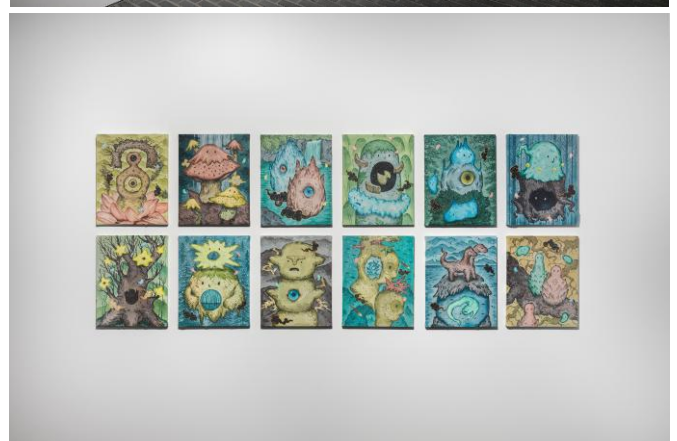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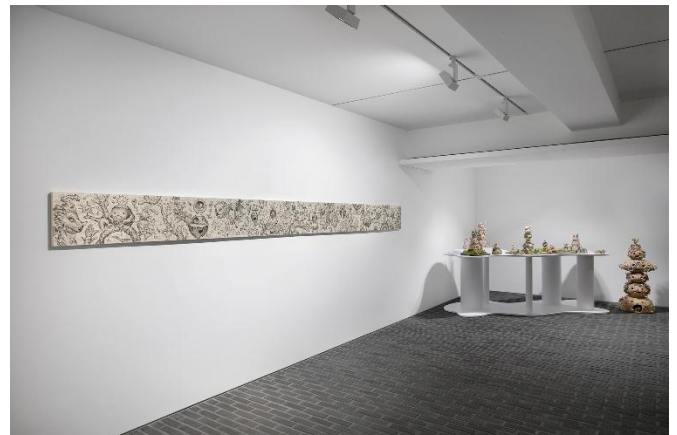
세계의 내부에는 인간의 언어나 시각에 의해 조형되지 않고 존재하는 장소가 편재한다. 그곳에는 말해진 바 없는 존재들과 본 적 없는 세계가 서식하고 있다. 우리 곁에 존재해 왔음에도 명확히 규명될 수 없었던 이 세계는 길고도 짧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 신과 괴물의 형태로 다양하게 등장했다. 양극단에 놓인 존재들이 서로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지금, 인간의 시각으로 감지되지 않고 언어로 규명될 수 없는 존재들은 어떻게 작동할까?

리처드 커니의 책 『이방인, 신, 괴물』은 '나'와 '우리'라는 세계의 경계를 비집고 침범하는 '이방인'을 '신' 혹은 '괴물'이라 이름 지으며 흥측하게 뒤틀린 '괴물'의 이미지와 압도적이고 신성한 '신'의 이미지를 극단의 영역에서 병치한다. 신 그리고 괴물. 양극단이 서로 대립하는 지금 우리의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우리는 과연 이들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을까?', '그 근거란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의 모티브로 동양에서 묘사하는 동서남북으로 분할된 세계의 네 끝자락에 위치하여 사방을 지켜주는 수호신 '청룡', '주작', '백호', '현무'의 이미지를 가져와 보고자 한다. 이 사신은 경계 내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해 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경계 바깥의 이들에게는 힘이 세고 사나운 괴물처럼 보일 수 있다. 작업은 누군가에겐 신, 누군가에겐 괴물이 될 수 있는 그 존재의 신비로움을 빌려 인지 너머의 다양한 세계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사신이 등장하는 연작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바라보는 사신의 형태를 벗어나 신도 괴물도 아닌 경계 세계의 존재를 보여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를 그려내는 행위를 통해서, 이전 작업에서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경계의 대상을 탐구하며 이들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4.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임수범, 《어젯밤 바라본 금빛 용의 신기루》(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5. 작가소개



임수범 프로필 이미지

© LIM Subeom.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작가 및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임수범은 1997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2022년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2026년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스페이스 빈틀(광주, 한국, 2025), 상업화랑(서울, 한국, 2024; 2023), 예술공간 집(광주, 한국, 2022)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한국, 2026), 포스코미술관 광양(광양, 한국, 2026), 디디에프(광주, 한국, 2025; 2022), 광주비엔날레 광주파빌리온(광주, 한국, 2024),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24), 호랑가시나무 글라스폴리곤 및 베이스폴리곤(광주, 한국, 2023), 대전시립미술관(대전, 한국, 2023), 산수싸리(광주, 한국, 2021) 등의 기관이 연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6년 에이치 아트랩(광주, 한국), 2022년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광주, 한국)에 입주해 작업했다. 전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아라리오컬렉션 등의 기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6. 전시서문

신기루의 경계에서 만난 존재들

이혜원(독립 기획자)

신기루는 분명히 보이지만 결코 가닿을 수 없는 상(像)이다. 그것은 우리의 지각이 세계를 향해 내민 손이 번번이 허공을 쥐고 마는 자리,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 사이에 가로놓인 간극에서 피어오른다. 임수범의 작업은 바로 이 간극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오래도록 암묵지(暗默知)와 인간 인지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감각으로는 온전히 담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너무나 커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동시에 너무나 작아서 포착되지 않는 세계. 그 세계의 가장자리에는 언제나 이계(異界)의 존재들이 서성인다.

이 존재들은 처음 골렘의 형상으로 임수범의 캔버스에 등장했다.¹ 히브리어로 '일정한 형식이나 모양이 없는 물질'이란 뜻을 지닌 골렘은 신화로 전해지는 존재로서, 흙먼지, 모래, 나무 등 자연의 물질 덩어리가 창조주로부터 영혼을 부여받아 움직이는 생명체다. 흥미로운 것은 작가가 골렘을 자연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로 사유했다는 점이다. 흙으로 빚어져 스스로 움직이는 이 피조물은 작가에게 자연을 바라보는 서구의 근대적 세계관, 나와 마주 선 거대한 세계 그 자체의 은유였다. 나라는

¹ 임수범, 〈골렘은 어디서나 살아있어〉,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3 x 130.3 cm.

존재와 세계라는 존재가 대립하는 자리,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작아 지각으로 담을 수 없는 그 세계의 표상으로서 골렘이 호명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유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지키는 자는 누구인가.

이번 전시에서 골렘은 사신(四神), 곧 한 세계를 수호하는 존재로 변이한다. 그 출발점에 놓인 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적 중 하나인 강서대묘의 사신도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들은 각 방위를 지키며 무덤이라는 하나의 세계를 봉인하는 수호신이다. 무덤 안에 잠든 이에게, 그리고 그 세계에 속한 내부인에게 이들은 불안을 잠재우고 사후를 호위하는 존재다. 그러나 같은 형상이 세계의 바깥에 선 자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한다. 경계를 넘어 들어오려는 외부인에게 수호신은 길을 막아서는 위협, 곧 괴물이다. 작가는 바로 이 지점, 즉 괴물과 신 사이에 그어진 경계가 보는 이의 자리에 따라 흔들리고 허물어지는 그 모호함에서 이번 작품들을 길어 올렸다고 말한다.²

이방인과 괴물과 신, 이 세 존재의 경계가 본디 불안정하다는 통찰은 시각문화 연구자이자 시각예술가인 알렉사 라이트의 논의와 깊이 공명한다. 라이트는 『괴물성: 시각 문화에서의 인간 괴물』에서, 고대부터 중세까지 세계의 끝에 존재한다고 믿어진 '기괴한 종족(Monstrous Races)'을 분석하며 이들이 근본적으로 역설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동일한 형상이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경이로운 것과 경고적인 것으로 동시에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중요한 것은 괴물의 형태가 시대마다 달라져도 그 사회적 기능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괴물은 언제나 '인간으로 용인되는 것'의 경계를 가시화하는 장으로 기능해 왔다. 그렇기에 괴물의 형상은 그것이 묘사하는 대상보다, 오히려 그 경계를 그은 이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 관찰자 자신의 불안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괴물성(monstrosity)과 기괴함(monstrousness)이라는 단어가 모두 '보여주다'와 동시에 '주의를 주다, 일러 주다'를 뜻하는 라틴어 monstrare 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괴물은 처음부터 위협이자 가르침이었고, 보여 줌으로써 경계를 일깨우는 시각적 현상이었다. 임수범의 수호신이 누군가에게는 안식을, 누군가에게는 공포를 주는 그 이중성은, 따라서 우연이 아니라 괴물-신이라는 형상에 내장된 오래된 논리의 발현이다. 그리고 회화는 이 시각적 현상을 다루기에 맞춤형 매체가 된다.

이 모호한 경계는 임수범이 구체화한 화면 위에서 혼종적인 이형(異形)의 존재로 모습을 드러낸다. 신성한 것과 괴물적인 것이 한 몸에 깃들고, 신과 괴물이 서로를 비추며 의존한다. 그런데 임수범이 이 존재들을 재현하는 방식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그들의 외형에서 느껴지는 친근함, 나아가 귀여움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닮은 둥근 윤곽과 천진한 표정을 한 이 신과 괴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보다 먼저 인간적 호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이 비인간의 형상에서 인간의 면모를 읽어 내는 것을 형태가 없거나 모호한 시각적·청각적 자극에서 인간의 얼굴을 찾아내는 인간 뇌의 오랜 습성인 파레이돌리아(pareidolia) 또는 변상증(變像症)으로 연결지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² 임수범, 이해원과의 대화, 광주 H아트랩, 2026년 5월 6일.

³ 알렉사 라이트, 『괴물성: 시각 문화에서의 인간 괴물』, 이해원·한아임 옮김(범고래출판사, 2021), 20-21.

답은 작가 자신에게 있다. 임수범은 이형의 존재가 왜 인간적 면모를 띠는가를 두고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의 대담으로 이렇게 답한다.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형상이 필요했다고. 신적인 것과 이계의 것을 그리는 전통적인 방식, 곧 위협과 숭고와 위엄으로부터 벗어나,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형식을 시도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같은 괴물-신 사이의 존재를 마주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보는 것'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면, 임수범의 존재들은 바로 그 딜레마 위에 신기루처럼 서 있다. 친숙해 보이기에 우리는 다가가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어딘가 어긋난 이질감이 배어 나온다. 천진함의 한켠에서 본능적으로 서늘함을 감지하기 때문일까. 천진한 야생은 가장 잔인한 것에 다름 아니기에 그러하다. 그 잔인함은 감정적인 악의가 아니라 선악의 구분 이전에 있는 순수한 본능, 생과 사가 무심히 교차하는 자연의 냉혹한 법칙에 가깝다. 가차 없기에 더욱 압도적인 그 힘 앞에서, 귀여운 형상은 오히려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된다. 라이트의 말처럼, 인간 괴물은 형언할 수 없는 위협을 형상화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왔다. 임수범의 천진한 수호신들 역시 그러하다. 이들은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폭력을 친근한 얼굴 안에 담아냄으로써, 그 두려움을 비로소 마주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세계의 가능할 수 없음은 회화의 화면 구조에서도 되풀이된다. 임수범의 회화는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지금 그려진 세계에서 한 걸음 zoom아웃하면 그것을 품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다시 뒤로 물러서면 그 바깥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화면은 끝없이 재구성되고, 확대되고, 축소된다. 일찍이 2023년의 전시에서 작가는 여러 서사를 겹쳐 놓는 패치워크의 방식으로, 어떤 이야기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회화의 형식을 실험한 바 있다.⁴ 용의 등 뒤로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 그 너머에서 다시 반복되는 산들, 이 무한히 포개지는 배경은 우리의 인지 너머에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가 존재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작가는 이야기가 끝나 버리는 것, 하나의 의미로 굳어 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듯하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야말로, 세계의 광대함 앞에 선 인간 인지의 한계라는 이 전시의 출발점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임수범은 오래된 시간의 질감으로 빚어낸다. 작가의 영감은 박물관의 유물에서 온다. 유물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아득히 오래된 느낌에 대한 지향은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없는 그의 조형적 특징이며, 무엇보다 매체를 다루는 방식에서 또렷이 드러난다. 이번 작업에서 그는 강서대묘의 오래된 벽화와도 같은 질감을 얻기 위해 화면에 모래를 뿌려 거친 표면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형상을 엮었다. 세월에 마모된 듯한 바탕이다. 여기에 물을 넉넉히 머금은 아크릴을 열게 올리면, 마치 동양화의 분채처럼 번지며 마르는 효과가 피어난다. 서양의 안료인 아크릴을 동양의 분채처럼 다루는 이 방식은 재료의 경계마저 가로지르며 시간의 깊이를 화면에 아로새긴다.

⁴ 임수범 개인전 《탐험가 S, 너는 값진 거짓말을 보았어》(상업화랑 용산, 서울, 한국, 2023).

오래됨을 향한 작가의 시선이 영원성에 대한 매체적 탐구로 이어지는 것은 꼭 마땅해 보인다. 그 탐구가 가장 분명하게 결정(結晶)되는 것이 도자 작업이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도자를 익히면서, 작가는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상상을 거듭하는 자신의 작업이 언젠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인간이 아닌 누군가에게 어떻게 읽힐 것인가를 자문하게 되었다고 한다.⁵ 그 물음 끝에서 그는 가장 오래 보존되는 매체로서의 도자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도 했다. 자신이 박물관에서 만난 수많은 유물들이 도자의 형태였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영물(靈物)을 상징하기에 더없이 어울리는 이 매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빛은 이계의 존재들에게 영속성을 부여한다. 흙이 불을 만나 비로소 영원을 얻는 그 과정은 사라지지 않는 세계를 향한 작가의 오랜 갈망과 포개진다.

그리하여 임수범의 작업은 오래된 과거에서 길어 올린 현재의 형상을 미래로 띄워 보내는 한 통의 전언이 된다. 강서대묘의 사신이 천오백 년의 어둠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했듯, 작가의 수호신들 또한 시간의 저편을 향해 발신된다. 우리가 어젯밤 바라본 금빛 용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기루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 끝나는 자리에 여전히 무언가가 존재함을 안다는 것이기도 하다. 임수범은 그 가닿을 수 없는 세계의 문턱에 천진한 얼굴의 수호신들을 세워 둔다. 괴물이자 신이고,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그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우리가 내미는 시선 그 자체의 형상일 것이다.

7. 작가약력

임수범

1997년 광주 출생
광주에서 거주하며 작업

학력

2026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석사 수료
2022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학사

개인전

2026 어젯밤 바라본 금빛 용의 신기루,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
2025 빛이 드리우는 변방의 땅, 스페이스 빈틀, 광주, 한국
상상 생명체 연구소, 해동문화예술촌 소동동, 담양, 한국
2024 그건 아마 가장 작은 세상일지 몰라, 상업화랑, 서울, 한국
2023 탐험가 S, 너는 값진 거짓말을 보았어, 상업화랑, 서울, 한국
2022 나와 세계를 만들어 보지 않겠나, 예술공간 집, 광주, 한국

단체전

2026 상상으로 엮인 지도, 포스코미술관 광양, 광양, 한국

⁵ 임수범, 이혜원과의 대화, 광주 H아트랩, 2026년 5월 6일.

- 이형의 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 2025 도깨비불, DDF, 광주, 한국
- 2024 무등: 고요한 긴장, 광주비엔날레 광주파빌리온,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 NEXT-UP, 온수공간, 화인페이퍼갤러리, 서울, 한국
- micro-atopos, 갤러리 띠오, 서울, 한국
- 무등예찬 다시보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광주, 한국
- 착륙지점,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23 무등예찬: 산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호랑가시나무 글라스폴리곤 및 베이스폴리곤, 광주, 한국
- 어쩌면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 점핑 래빗, 신세계갤러리, 광주, 한국
- 2022 붕괴하는 세계들을 끌어안기, DDF, 광주, 한국
- 우진 신예작가 초대전, 우진문화공간, 전주, 한국
- 2021 샘을 위한 샘, 광주 비평소생 프로젝트 이-음, 산수싸리, 광주, 한국
- 2020 전주독립예술제, 서노송예술촌, 전주, 한국

레지던시

- 2026 호반문화재단 에이치 아트랩, 한국
- 2022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한국

소장

- 전남도립미술관, 한국
- 광주시립미술관, 한국
- 아라리오컬렉션, 한국

ARARIO GALLERY SEOUL

LIM Subeom

Last Night's Golden Dragon Mirage



Installation view of LIM Subeom: *Last Night's Golden Dragon Mirage*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Artist : LIM Subeom (b. 1997)
Title : *Last Night's Golden Dragon Mirage*
Dates : 1 Jul – 15 Aug 2026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B1F
Artworks : 62 Artworks in total (35 Paintings, 27 Ceramics)

[Artwork images and Installation view]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HSYwn7CX6hdEEETG_aubuiusnfMG0JU?usp=drive_link

[Inquiry]

Miran PARK, Deputy Director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Boyoung HWANG, Associate | E. boyoung.hwang@arariogallery.com

Table of Content	1. Exhibition Overview	-----	12
	2. Exhibition Layout and Artworks	-----	12-13
	3. Artist Statement	-----	14
	4. Installation view	-----	15
	5. Artist Introduction	-----	16
	6. Curatorial Essay	-----	16-19
	7. Artist CV	-----	19-20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is pleased to present LIM Subeom's (b. 1997) solo exhibition, *Last Night's Golden Dragon Mirage*, from July 1 to August 15, 2026. As LIM's first solo exhibition at ARARIO GALLERY, the show features 62 paintings and ceramic works that delve into unknown realms unshaped by human language or perception, along with the unnamed entities that inhabit them. Driven by a profound curiosity about the origins of nature and matter, LIM has continuously explored liminal beings that cannot be fully defined by human cognition, imagining the consciousness of all things that might have existed before humanity. Viewing the world as a massive, organic network, he summons these undefined entities into pictorial and physical spaces, establishing a unique visual language that dismantles the hierarchy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Presented on the basement level of ARARIO GALLERY SEOUL, this exhibition pose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how we perceive "the other" within contemporary social contexts. LIM draws attention to the human history of framing 'strangers,' who breach the rigid boundaries of 'I' and 'we,' as either overwhelming, sacred 'gods' or hideously twisted 'monsters.' Through this, he raises the question: "Can we truly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As a medium for this reflection, LIM appropriates the iconography of the *Sasin* (the Four Guardian Deities: the Azure Dragon, the Vermilion Bird, the White Tiger, and the Black Tortoise), which protect the four cardinal directions. These guardian deities embody an ambivalence; they are sacred protectors to those within the boundary, yet to those on the outside, they can appear as terrifying monsters. The form of the colossal golden dragon descended upon the exhibition space, alongside the series of four guardian deities that overwhelmingly surround it, departs from conventional representations to visualize beings of a liminal world that are neither gods nor monsters. In a space where the hierarchy between the sacred and the monstrous is dissolved, the exhibition seeks to transcend dichotomies, inviting an expansion of thought and attempting a new dimension of connection with unfamiliar beings.

2. Exhibition Layout and Artworks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2026. LIM Subeom.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This exhibition comprehensively explores LIM Subeom's structural and material experiments, which aim to visualize the unknown realms existing beyond human perception. In the exhibition's title and its eponymous artwork, *Last Night's Golden Dragon Mirage* (2026), the "mirage" represents an illusion that shimmers before the eyes but remains forever out of reach; it symbolizes the imperfect gap between what we see and what we actually know. LIM summons liminal beings, those that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human language or knowledge, onto the canvas by translating them into creatures



Last Night's Golden Dragon Mirage

2026

Acrylic on canvas

224 x 224 cm

with familiar appearances. In doing so, he compels us to move beyond the limits of everyday cognition and confront the profound strangeness of a massive, uncontrollabl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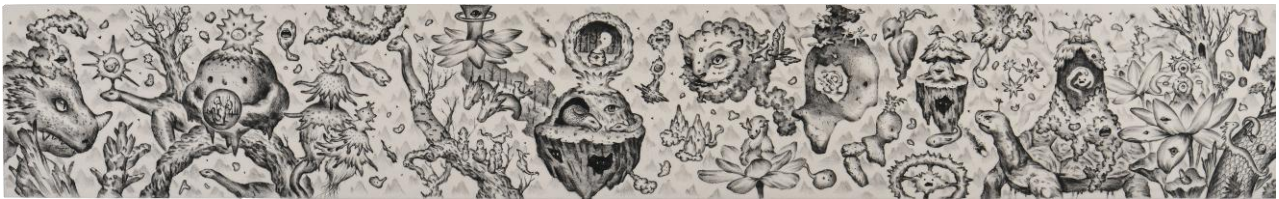
This unknown world expands infinitely through the pictorial structures Lim constructs. By shifting perspectives—zooming in and out of the picture plane—he employs a nested, frame-within-a-frame composition where taking a step back reveals an entirely new dimension. Entities clustered together in *Stories pushing through fractured thresholds* (2026) are sometimes extracted and redrawn as independent smaller works, while motifs from one piece unexpectedly surface in another, fluidly traversing the boundaries of his canvases. The way a colossal world unfolds behind a single being, only to be layered over by new mountain ranges, signifies that the world can never be defined by a singular narrative or a fixed meaning. Endlessly overlapping in a continuous loop, LIM’s canvases refuse to arrive at a conclusive narrative, urging us instead to imagine the boundless stories that exist just beyond the reach of human perception.



White Tiger Crossing the Cold Wind
2026
Acrylic on canvas
140 x 200 cm



Red Phoenix of the Blazing Wings
2026
Acrylic on canvas
140 x 200 cm



Stories Pushing Through Fractured Thresholds
2026
Pencil on felt
30 x 200 cm

Furthermore, LIM actively explores the materiality of his mediums to imbue these undefinable, illusory beings with physical permanence. For instance, he scatters sand onto the canvas and applies thin, overlapping layers of acrylic to recreate the weathered texture of time, reminiscent of ancient tomb murals. He also utilizes ceramics, a medium that permanently preserves its form through the alchemy of earth and fire. This approach reveals his archival attitude: rather than allowing these liminal forms to dissipate like a fleeting mirage, LIM adopts the visual language of ancient relics in order to transmit them to someone in the distant future.



Symbiotic Spirit
2025
Glazed ceramic
23 x 24 x 41 cm

3. Artist Statement

The Four Guardian Deities: An Intimate World on the Boundary Between Gods and Monsters

LIM Subeom

Spaces unshaped by human language or perception are omnipresent within our world. There, unspoken beings and unseen worlds reside. Though this realm has always existed alongside us, it has remained clearly undefinable, appearing in various forms of gods and monsters throughout the long yet fleeting history of humanity. At a time when beings at opposite extremes fiercely contest right and wrong, how do these entities—undetectable by human eyes and undefinable by language—ope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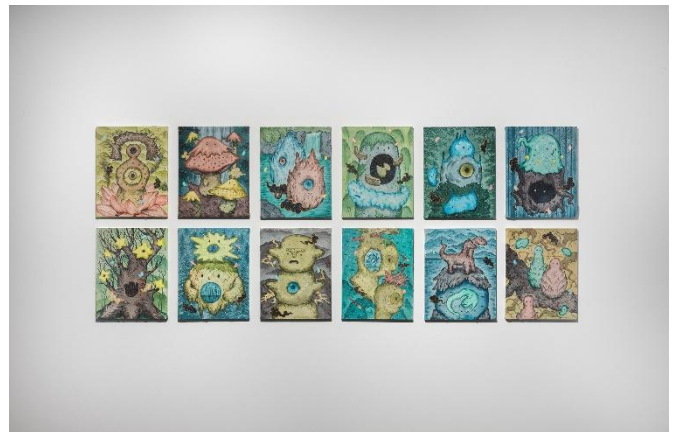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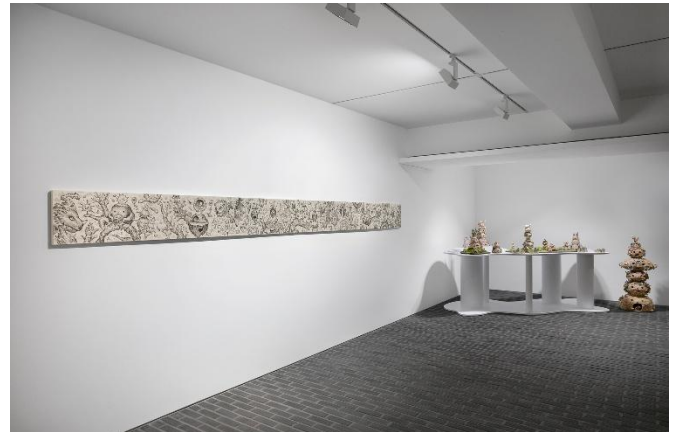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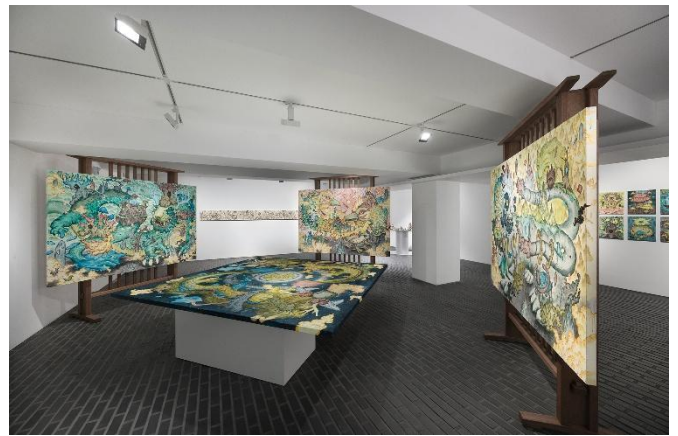
In his book *Strangers, Gods and Monsters*, Richard Kearney names the "stranger" who breaches the borders of "I" and "we" as either a "god" or a "monster." He juxtaposes the hideously twisted image of the monster with the overwhelming, sacred image of the god at opposite extremes. Gods and monsters. In light of our current social climate, where such polar opposites constantly clash, my work begins with the questions: "Can we truly draw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and "Is there even a basis for such a distinction?"

As a motif for this work, I appropriate the imagery of the Four Guardian Deities from Eastern mythology—the Azure Dragon, the Vermilion Bird, the White Tiger, and the Black Tortoise—who are positioned at the four corners of a divided world to protect the cardinal directions. While these deities are revered as sacred protectors by those inside the boundaries, they may appear as powerful, ferocious monsters to those on the outside. By borrowing the mystique of these beings, who can be gods to some and monsters to others, my work seeks to speak of the diverse worlds that lie beyond human cognition. The series featuring these guardians breaks away from their conventional depictions, presenting them instead as beings of a boundary world—neither entirely gods nor monsters. Through the act of illustrating a world that we cannot ordinarily perceive but that undoubtedly exists, I continue the trajectory of my previous works. I aim to explore liminal subjects that defy dichotomous categorization, with the hope that this exploration will lead to a broader expansion of thought regarding their existence.

4. Installation view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redit: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Installation view of LIM Subeom: *Last Night's Golden Dragon Mirage*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5. Artist Introduction



LIM Subeom at her studio.

© LIM Subeom.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Born in Gwangju in 1997, LIM received his BFA in Fine Art from Jeonbuk University in 2022, and completed the coursework for an MFA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2026.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Space Vintle(Gwangju, Korea, 2025), Sahng-up Gallery (Seoul, Korea, 2024; 2023) and Art Space House (Gwangju, Korea, 2022). He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2026), Posco Art Museum Gwangyang (Gwangyang, Korea, 2026), Space DDF (Gwangju, Korea, 2025; 2022), 15th Gwangju Biennale Gwangju Pavilion (Gwangju, Korea, 2024),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4), Horangasinamu Glass Polygon and Base Polygon (Gwangju, Korea, 2023),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2023), Sansu Ssari (Gwangju, Korea, 2021) and more. He participated in residency programs at the Youth Artist Support Center of the Gwangju Museum of Art (Korea) in 2022 and H Art Lab (Gwangju, Korea) in 2026. His works are collected by Jeonnam Museum of Art, Gwangju Museum of Art and ARARIO Collection.

6. Curatorial Essay

The Beings Encountered at the Edge of a Mirage

LEE Hyewon (Independent Curator)

A mirage is an image that is clearly visible yet forever out of reach. It arises from the gap between seeing and knowing, the very place where our perception reaches out to the world, only to grasp empty air time and again. LIM Subeom's work departs from this very gap. The artist has long contemplated how to visualize tacit knowledge, the limits of human cognition, and an invisible world that cannot be fully grasped by our senses. It is a world too vast to be taken in at a glance, yet simultaneously too minuscule to be captured. At the fringes of this world, otherworldly beings are always lingering.

These entities first appeared on LIM's canvas in the form of a Golem⁶. Derived from the Hebrew phrase for "unformed or shapeless matter," the Golem is a mythological creature, an animate being formed from masses of natural materials such as dust, sand, and wood, endowed with a soul by its creator. What is intriguing is that the artist conceptualized the Golem not merely as a part of nature, but as an entire "world" unto itself. For the artist, this self-moving creature molded from earth served as a metaphor for the modern Western worldview of nature—an immense world standing in direct opposition to the self. The Golem was thus summoned to represent the very space where the self and the universe collide; a world too vast and too minute to be fully comprehended by human perception. This line of thought naturally leads to

⁶ LIM Subeom, *The Golem Lives Everywhere*, 2023, Acrylic on canvas, 130.3 x 130.3 cm

the following question: If such a world exists, who is its guardian?

In this exhibition, the Golem transforms into the Four Guardian Deities (*Sasin*), entities tasked with protecting a world. The starting point for this evolution is the mural of the Four Deities in the Great Tomb of Gangseo (*Gangseo Daemyo*), one of the oldest surviving archaeological sites of its kind. The Azure Dragon, the White Tiger, the Vermilion Bird, and the Black Tortoise: guarding the cardinal directions, these are the tutelary deities that seal the distinct world of the tomb. To the deceased resting within, and to the insiders who belong to that world, these beings alleviate anxiety and safeguard the afterlife. However, to those standing on the outside of this world, the very same figures present a completely different face. To an outsider attempting to cross the boundary, the guardian deity becomes a formidable threat blocking the path—a monster. The artist states that his current works were drawn from this exact ambiguity: the point where the boundary drawn between monster and god wavers and crumbles depending on the vantage point of the observer.⁷

The insight that the boundaries between the stranger, the monster, and the god are inherently unstable resonates deeply with the discourse of visual culture researcher and visual artist Alexa Wright. In her book *Monstrosity: The Human Monster in Visual Culture*, Wright analyzes the "Monstrous Races" believed to exist at the edges of the world from antiquity through the Middle Ages, arguing that they are fundamentally paradoxical beings. This is because the same figure can be interpreted simultaneously as positive and negative, as wondrous and cautionary, depending on the observer's perspective.⁸ Crucially, while the physical form of the monster may change across eras, its social function remains constant. The monster has always functioned as a site for visualizing the boundaries of what is deemed acceptable as human. Thus, the figure of the monster reveals more about those who draw these boundaries than about the subjects it depicts. It exposes the observer's own anxieties and ignorance, illustrating what they feared and what they failed to understand. It is deeply significant that the words "monstrosity" and "monstrousness" both originate from the Latin word *monstrare*, which means "to show" as well as "to warn" or "to instruct." From the very beginning, the monster was both a threat and a lesson, acting as a visual phenomenon that awakens us to boundaries through the act of showing. The duality of LIM Subeom's guardian deities, offering solace to some while instilling fear in others, is therefore no coincidence; it is the manifestation of an ancient logic embedded within the figure of the monster-god. Consequently, painting serves as an exceptionally fitting medium for addressing this visual phenomenon.

This ambiguous boundary reveals itself on the canvases materialized by LIM through hybrid, anomalous entities. The sacred and the monstrous reside within a single body, while god and monster mutually reflect and rely on one another. However, there is one common characteristic in the way LIM represents these beings: the sense of familiarity, and even cuteness, that emanates from their appearances. With their rounded silhouettes and innocent expressions reminiscent of animated characters, these gods and monsters evoke a sense of human affinity in us before instilling fear. Our tendency to read human traits into these non-human forms could perhaps be linked to pareidolia, the human brain's age-old psychological habit of discerning human faces within formless or ambiguous visual and auditory stimuli. Yet, the more fundamental answer lies with the artist himself. While LIM notes that he is still searching for the precise reason why these

⁷ LIM Subeom, in conversation with Lee Hyewon, Gwangju H Art Lab, May 6, 2026.

⁸ Alexa Wright, *Monstrosity: The Human Monster in Visual Culture*, trans. Lee Hyewon and Han Aim (Seoul: Beomgorae Publishing, 2021), 20-21.

anomalous beings take on human characteristics, he offers one clear explanation. To convey profound and complex narratives, he needed forms that audiences could easily understand and approach. It is the result of departing from the traditional methods of depicting the divine and the otherworldly, which typically rely on threat, sublimity, and majesty, to instead experiment with a form that is at once the most intimate and the most distant.

If we, faced with these beings suspended between monster and god, experience a dilemma between "knowing what is seen" and "seeing what is known," LIM's entities stand like a mirage upon that very dilemma. We are drawn to them by their apparent familiarity, yet a closer inspection reveals a creeping sense of uncanny strangeness. Perhaps this is because we instinctively detect a chilling undercurrent beneath their innocence. For an innocent wilderness is nothing less than the utmost cruelty. This cruelty does not stem from emotional malice, but from pure instinct preceding the division of good and evil—akin to the ruthless laws of nature where life and death indifferently intersect. Confronted by a power made all the more overwhelming by its relentlessness, their cute appearance ironically serves as a mechanism that amplifies our fear. As Wright observed, the human monster has paradoxically provided us with a sense of security by materializing and visualizing unspeakable threats. LIM's innocent guardian deities function in much the same way. By encapsulating the unfathomable violence of the world within familiar faces, they finally transform that terror into something we can confront.

The unfathomable scale of the world is echoed in the structural composition of the canvases. LIM's paintings employ a frame-within-a-frame structure. Zooming out from the immediate depicted world reveals another realm encompassing it; stepping further back unveils yet another new world beyond that. The pictorial space is endlessly reconstructed, expanded, and contracted. Earlier, in a 2023 exhibition, the artist experimented with a patchwork method of layering multiple narratives, testing a painterly format where the overarching narrative completely shifts depending on which specific story the viewer chooses to focus on.⁹ The infinite universe sprawling behind the dragon's back, the mountains repeating beyond it—these endlessly overlapping layers constantly remind us that there are narratives far beyond our cognitive reach that can never be fully comprehended. The artist seems wary of allowing a story to reach a definitive end or solidify into a single, fixed meaning. And this very wariness brings us full circle to the starting point of this exhibition: the limits of human cognition in the face of the world's immense vastness.

LIM Subeom materializes this unfathomable world through the texture of ancient time. The artist draws his inspiration from artifacts found in museums. His pursuit of that profoundly ancient aura emanating from antiquities has been a consistent formal characteristic of his work, both past and present, and is most distinctly revealed in his treatment of the medium. In this current body of work, to achieve a surface reminiscent of the ancient murals in the Great Tomb of Gangseo, he first scatters sand across the canvas to create a coarse texture before layering his figures over it. The resulting foundation appears seemingly weathered by the passage of time. When heavily diluted acrylic paint is applied in thin washes over this base, it bleeds and dries, producing a visual effect much like that of *bunche* (traditional Eastern powder pigment). This method of handling acrylic, a Western medium, as though it were an Eastern pigment transcends material

⁹ LIM Subeom, *Explorer S, You Saw a Precious Lie* (solo exhibition, Sahng-up Gallery Yongsan, Seoul, South Korea, 2023).

boundaries, ultimately engraving the profound depth of time onto the pictorial plane.

It seems entirely fitting that the artist's gaze toward antiquity extends into a material exploration of permanence. This exploration crystallizes most evidently in his ceramic works. While studying ceramics between 2022 and 2023, the artist continually imagined entities other than ourselves, prompting him to question how his work might be interpreted by non-human beings in the distant future. This inquiry ultimately drew his interest to ceramics as a medium capable of enduring preservation.¹⁰ He was also influenced by the realization that countless historical artifacts he had encountered in museums took the form of ceramics. Through this material, which is exceptionally well-suited for symbolizing sacred creatures (*yeongmul*), the artist grants permanence to the otherworldly beings he has sculpted. The transformative process wherein earth meets fire to finally achieve eternity perfectly aligns with the artist's enduring longing for an imperishable world.

Ultimately, LIM's work serves as a transmission, casting forms of the present, drawn from the depths of the ancient past, into the future. Just as the Four Guardian Deities of the Great Tomb of Gangseo traversed fifteen hundred years of darkness to reach us, the artist's guardian deities are similarly dispatched toward the far reaches of time. The golden dragon we beheld last night might have been an elusive mirage. Yet, to see a mirage is to acknowledge that something still resides at the very edge where our perception reaches its limit. LIM places these innocent-faced guardian deities at the threshold of this unreachable realm. Simultaneously monsters and gods, these entities, at once the closest and the most distant, are perhaps the very embodiment of the gaze we extend toward the unseen.

7. Artist CV

LIM Subeom

Born in 1997, Gwangju, Korea

Lives and works in Gwangju, Korea

Education

2026 MFA Coursework Completed, Fine Ar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2022 BFA Fine Art, Jeonbuk University, Jeonju, Korea

Solo Exhibitions

2026 *Last Night's Golden Dragon Mirage*,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The Land Where Falls Light on the Frontier*, Space Vintle, Gwangju
Imaginary Creatures Laboratory, Haedong Art & Culture Platform Sodong-dong, Damyang, Korea

2024 *It May Be the Smallest World*, Sahng-up Gallery, Seoul, Korea

2023 *Explorer S, You Saw a Precious Lie*, Sahng-up Gallery, Seoul, Korea

¹⁰ LIM Subeom, in conversation with Lee Hyewon, Gwangju H Art Lab, May 6, 2026.

2022 *Will you Create the World with Me*, Art Space House, Gwangju, Korea

Group Exhibitions

2026 *Where stories meet*, Posco Art Museum Gwangyang, Gwangyang, Korea

Aberrant Bones,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2025 *Dokkaebi Fire*, DDF, Gwangju, Korea

2024 15th Gwangju Biennale Gwangju Pavilion *Equity: Peaceful Strain*,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NEXT-UP, SPACE ON 洙, Finepaper Gallery, Seoul, Korea

micro-atopos, Gallery THEO, Seoul, Korea

Again Mudeung Adoration, Gwangju Cultural Foundation, Gwangju, Korea

Landing Poin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3 *Mudeung Adoration: The Mountain Asks Nothing of Us*, Horangasinamu Glass Polygon and Base Polygon, Gwangju, Korea

Things We May Not Dare to See,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Jumping Rabbit, Shinsegae Gallery, Gwangju, Korea

2022 *Hugging the Collapsed Worlds*, DDF, Gwangju, Korea

Woojin New Artists Invitational Exhibition, Woojin Cultural Space, Jeonju, Korea

2021 *Calculation for Spring*, Gwangju Criticism Regeneration Project Yi-Eum, Sansu Ssari, Gwangju, Korea

2020 *Jeonju Independent Art Festival*, Seonosong Art Village, Jeonju, Korea

Residency

2026 H Art Lab, Hoban Cultural Foundation, Korea

2022 Young Artists Support Center, Gwangju Museum of Art, Korea

Collection

Jeonnam Museum of Art, Korea

Gwangju Museum of Art, Korea

ARARIO Collection, Korea